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길체험 프로그램 (6)태흥초등학교

“뱀과 개구리 모두 우리와 함께 해요”

어제 한라산둘레길 탐방 뱀과 거북 등 만져보며 탄성 얼굴엔 기대와 두려움 가득 길 걸으며 가을정취도 만끽



태흥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고영민 소장으로부터 파충류와 양서류 설명을 듣고 있다. 강다혜기자

“많은 어른들이 뱀을 무서워하고 싫어해서 뱀을 보면 도망치거나 죽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방금 직접 만져봤 듯, 대부분의 뱀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뱀, 개구리, 뱀꼬리 모두, 우리와 자연에서 함께 사는 거죠.”

제주도교육청과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2021 숲길 체험 프로그램’이 26일 서귀포시 하원동 한라산둘레길 동백길(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에서 열렸다.

이날 프로그램엔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위치한 태흥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26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엔 양서류·파충류 등 곤충 학습에 이어 둘레길 걷기 체험 순으로 이어졌다.

첫번째 순서로 진행된 곤충 학습 프로그램은 고영민 제주양서류생태연구소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고 소장은 붉은거북·대륙유혈목이·맹꽁이 등 3가지 종류의 파충류와 양서류를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고 소장의 설명을 듣는 아이들의 표정은 자못 진지했다. 또 골똘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설명 중간중간 전진한 질문도 이어졌다. “울챙이 댄 물 속에서 살았는데 왜 개구리가 되면 물 밖에서 살죠?”, “개구리는 물 속에 들어가면 죽나요?”, “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물 속에서 살지 않고 물 밖에서 사나요?” 등 아이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숲길을 메웠다.

곤충 설명이 끝난 뒤 곤충을 손으로 만져보는 시간에 다다르자 호기심과 기대감, 무서움이 섞인 각종 비명과 탄성이 터져나왔다. “정그러워요”, “빨리 만져보고 싶어요”, “난 안 만질래요”, “저부터 만져볼래요.”

기다란 뱀(대륙유혈목이)과 다소 커다란 붉은거북을 쓰다듬는 아이들의 손길은 다소 거칠었던 비명과 탄성과는 달리 조심스러웠다. “세계 누르면 안돼, 예도 아프잖아”, “처음 닿을 땐 느낌이 이상한데, 부드러워요.”

고 소장은 곤충 체험을 마친 아이들에게 말했다. “뱀, 개구리, 거북, 사람 중 사람이 이 지구에서 가장 늦게 태어났죠. 하지만 사람이 모든 걸 탐하고, 죽이고, 무서워해요. 오늘 뱀을 보니 무섭나요? 만져봐서 알겠지만, 대부분의 뱀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무섭지 않아요. 모든 생명체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요.”

아이들은 고 소장의 말에 “뱀과 개구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요”라고 답했다. 곤충 체험이 끝난 뒤 아이들은 동백길을 걸으며 땅에 떨어진 솔방울, 나뭇잎, 자갈 등을 고이 모아 각자 챙겨온 비닐봉지에 담아갔다. 광현경 교사는 “오랜만에 학교 밖으로 나와서 가을을 느끼고 뜻깊은 추억을 새기고 간다”며 “아이들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대해 느끼고 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정 교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실에만 있던 아이들이 자연에서 체험을 통해 가을을 배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故 송달선 하사 유해 ‘71년만의 귀향’

1951년 설악산 전투서 전사

한국전쟁 당시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한 제주출신 고(故) 송달선 하사의 유해가 71년 만에 유족 품으로 돌아온다. >> 사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5일 강원도 및 경북 철곡지역에서 발굴한 4명의 6·25전사자 유해 중 1명이 고 송달선 하사임을 확인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출신인 고 송달선(1925년생) 하사는 1944년 3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같은 해 9월 육군으로 입대해 참전했다. 그는 1951년 5월 11일 국군 수도사단·11사단이 동해안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6사단과 벌었던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했다.

고 송달선 하사의 장남인 고 송창일씨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다 끝내 아버지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난해 3월 사망했지만 생전인 2019년 12월 10일 제주보건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신원확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50년 8월 해병대에 입대해 참전한 동생 송치선씨는 “전쟁 당시 복무 중이던 부대로 형님의 전사를 알리는 기별이 왔지만 실감 나지 않았다”면서 “70년이 지나 형님의

유해 귀환 소식을 접하니 이제야 실감난다”고 전했다.

송치선씨는 현재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 송달선 하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주관)는 28일 유족 자택에서 약식으로 진행된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시원하게 물 뿜는 스프링클러 26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한 농가에서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직원 채용시 반드시 외부 심사위원 참여”

사립학교 인사 공정·투명성 강화 운영 지침 개정... 12월부터 시행

도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등 인사 관리의 공정·투명성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해 최근 도내 각급 사립학교에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민권의 위원회 권고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채용시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교육청과 사전협의 실시해야 한다. 채용공고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로부터 20일 전 공고하되, 공고 장소는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제주일자리종합센터 등 4곳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시험전형위원회는 반드시 외부 심사위원(1/3 이상)을 참여토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경우 관계자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도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사무직원 인사(임용)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무직원의 인사 관리 등 도내 사립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 코로나19 확진 한자릿수 유지

26일 오후 5시 기준 7명 실내체육시설 감염 여전

제주지역에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5시까지 7명(3076~3082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082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들어선 198명이 확진됐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47명이 확진됐다. 최근 1주간 1일 확진자 수는 6.71명을 나타내고 있다.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3명,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및 입도객 2명, 코로나19 유증상자 2명 등이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3명 가운데 2명이 ‘제주시 실내체육시설(도장)’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됐다. 이로써 ‘제주시 실내체육시설(도장)’ 관련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쉽습니다

심심합니다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인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업무가 끝난 시간도 24시간 365일 대기중인 DIGICO KT의 전문 상담사 저는 AI 상담사 지니입니다.

고객님께 만족스러운 상담을! 직원분께 스트레스 감소를! 사장님께 운영 효율화를! AI로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AICC 가입문의 100번

KT AICC (AI Contact Center)

이용고객, 고객센터 상담사,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AI 고객상담 서비스

DIGICO KT